시민 주도로 완성하는 '전주독서대전'

시, 9월 11일~13일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서 '달려라 책' 주제 개최… 73개 프로그램 사전 접수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에서 펼쳐지는 독서문화축제인 '제9회 전주독서대전'이 시민 주도로 독서 문화를 실현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9회째를 맞이한 올해 독서대전은 '달려라 책'을 주제로 열린다. 시는 오는 2027년 10주년 도약을 앞두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독서생태계의 호흡을 이어가는 축제 개최를 목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시민 주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돼 정적인 독서 이미지를 넘어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의 축제로 나아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일반시민과 출판사, 서점, 독서동아리 등 60여 개의 전주시 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총 7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전주독서대전만의 특징은 책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구현한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민 시인' 나태주 작가 강연 △인생책 선물 책방 △'추억을 달리다!' 명랑운동회 △낭독과 음악 산책 등이 있다.

제9회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또한 올해 독서대전 주제인 '달려라 책'을 기반으로 시민의 질문과 문장으로 완성하는 기록형 아카이빙 프로그램도 기획됐으며, 전 세대가 책과 음악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예술 친화형 문화콘텐츠를 신설하고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강화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준비했다.

여기에 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행사장 내 시설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환경단체와 협력해 친환경 축제를 지속 추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 첫날인 오는 9월 11일 한벽문화관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축시 및 어린이 시낭송으로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9회 전주독서대전'의 막이 열린다.

초청 강연인 '작가와 달리다'에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 시인 나태주 작가 △폭넓은 작품 세계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정세랑 작가 △공감의 언어로 감동을 전하는 이금희 작가 등 따스한 감성을 바탕으로 전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또, '전주 올해의 책' 작가 강연에서는 최상희 작가와 윤일호 작가, 김민우 작가, 정이현 작가를, 지역 작가 강연에서는 정휘립 작가를 만날 수 있다.

특별 전시로는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공통 질문과 세대별 공감 질문 릴레이 '달리는 질문' △내 삶의 속도와 공동체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전시 벽면을 채우는 공동 제작형 전시 '문장 이어달리기' △나의 독서 성향과 습관을 점검하고 유형에 따른 독서 처방을 제공하는 참여형 전시 '나는 어떤 취향의 독자일까?' △초청 작가 및 북마켓 참여 책방·서점·출판사가 선정한 추천 도서 및 문장 전시 '이유 있는 단 한 권'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책을 새로운 독자에게 선물하고 뜻밖의 좋은 책을 골라 가는 마음 선물 교환소 '인생책 선물 책방' △시민공모전 수상작 및 전주 올해의 책 연계 작품 전시 '완독 명예의 전당' 등 시민 참여 전시가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민다.

올해 신설된 낭독과 음악 산책 프로그램으로는 △낭독이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문장을 달리는 낭독회' △시인의 시낭송과 클래식 앙상블의 선율로 우리 삶의 여정을 다독이는 '선율을 달리는 낭독회' △시낭송과 국악 선율이 함께하는 시를 깊이 체험하는 공연 '풍류를 달리는 낭독회' △전통의 기록과 역사를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써 내려가는 차오름의 퓨전국악공연 '책장을 달리는 노래'를 새롭게 선보이며 낭만 가득한 시간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상시 체험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과 경연, 북마켓, 독서단체 체험부스, 이벤트, 팝업스토어에 이르기까지 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모든 세대가 책으로 소통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9회 전주독서대전 프로그램 사전 접수는 11일부터 전주독서대전 공식 누리집(www.jjbook.kr)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56)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은 10일 주거 취약가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전주공업고등학교 전기과 학생과 지도교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공고 학생 봉사단, 재능 기부

조지훈 전주시장, 주거복지 소통 간담회 가져

11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전공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자발적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10일 주거 취약가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전주공업고등학교 전기과 학생과 지도교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술 나눔을 실천해 온 전주공고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격려하고, 실제 봉사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보람 등 생생한 소감을 자유롭게 나누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16년 개교 이래 지역 기술 인재를 키워온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지성·용기·창조'의 교훈 아래 실무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전기과 학생 봉사단은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솔선수범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지난 2021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협약 이후 전주공고 전기과 학생 봉사단은 △노후주택 전기 점검 및 안전시설 교체 △연탄난방 사용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시민 참여 집수리학교 생활전기 재능 기부 강의 등 현장 실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느꼈던 보람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 주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버추얼 프로덕션 ICVFX 교육으로 인재 양성 나선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허전)은 10일부터 LED 스테이지 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 ICVFX(In-Camera Visual Effects)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CVFX'는 시각효과(VFX)를 후반제작 단계에서 진행하지 않고 촬영 현장에서 완성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로, LED에 배경을 출력해 연기하는 배우를 촬영하는 순간 완성된 장면이 카메라를 통하여 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청년들이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을 익혀 영화·영상분야 취·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진흥원이 지난달 운영한 '버추얼 프로덕션 사전시각화 교육과정 3기'에 이어 추진하는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가상환경을 사전에 설계하고 구현하는 사전시각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LED 스테이지에 실시간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이를 실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ICVFX 제작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은 진흥원 IT벤처센터 2층 넥스트랩과 엣지스테이지에서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영화·영상 제작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를 직접 다루며 LED 스테이지 기반의 제작환경과 촬영 방식을 익히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촬영 실습과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교육생들은 기획부터 촬영, 후반제작까지 이어지는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팀별 영상 프로젝트도 완성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윤동욱 전주 부시장, 이동노동자 쉼터 찾아 의견 청취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야외 활동이 많은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휴식 여건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쉼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 나섰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지난 7일 전주시 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 전반적인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쉼터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쉼터 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윤 부시장은 쉼터 내부의 냉방 상태와 휴게공간, 이용 편의시설 등을 직접 살피며 폭염 시 이동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윤 부시장은 업무 도중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쉼터를 찾은 이동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쉼터 이용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에 앞서 시는 올여름 이른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연장 운영을 예년보다 약 2주 앞당긴 지난 6월 14일부터 시작했다. 쉼터는 오는 9월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기존 일요일 새벽 3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연장해 주말과 휴일에도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전주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51억 원으로, 시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특히, 5000만 원 이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비롯해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이 포함된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